

위대한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대규모남새생산기지인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이 10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은 련포장조 정신, 련포불바람을 일으키며 불과 230여 일동안에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거대한 온실농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 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가 가슴뿌듯한 장관을 펼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도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무연하던 벌판에 회한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은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유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업에 따라 동해기슭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보배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냈다고 하면서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세계최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가 성대히 준공하게 된것은 함경남도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기쁨이고 경사



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과 한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부지확정과 력량편성,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하시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은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과 뜻, 승결과 보복을 같이하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

과 우리 국가특유의 국풍인 군민대단결의 힘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레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기백배신심드높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련포온실농장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부감하시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과 몇달동안에 이처럼 회한한 대농장지구를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은것은 오직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거듭

치하시면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서 혁명군대 지휘성원으로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건설부대 지휘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매남새온실을 비롯한 생산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 품종을 더욱 높이고 온실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며 증명온실농장과 생산경쟁을 벌리면서 실지 함경남도인민들이 덕을 보는 농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서 인민들에게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련포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각 도에 건설하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련포지구에서 공산주의농촌마을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련포전역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결사관철의 헌신적투쟁기쁨을 발휘하여 올해 당과 국가의 최종대 건설정책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은 어려울수록 더욱 강렬하고 뜨거워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 증철되는 시련속에서도 세기를 주름잡으며 전면적부흥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